

# 가격 폭락 깊은 시름...완도 파산 어민 속출

“노화와 보길도에서 전복 양식을 하고 있는 어가들이 수협의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전복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완도 지역 어민들의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전복 가격 급락으로 근근이 버티던 어가들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논란까지 겹쳐 소비가 위축되자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는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어민들이 양식장 설비를 헐값에 넘기고 야반도주를 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새 광주 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파산을 신청한 전복 양식 어민이 총 6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 채권자인 소안수협과 금일수협에 통보된 어민이다. 이 가운데 채권 면책결정을 받은 어민은 총 26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도 건질 수 없는 가격 탓에 대출이자 조차 못내는 실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복 산지 가격은 큰 전복(kg당 8마리)은 2만3217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5.5%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중간 크기 전복(kg당 12마리)은 1만9739원으로 22.8% 하락했고 작은 전복(kg당 20마리)은 1만5391원으로 19.5% 감소했다.

올해로 23년째 전복양식을 하고 있는 김광근 전복생산자협회 노화 지회장은 “현재 노화 실리마를 인근에서 80여가 정도가 전복양식을 하고 있지만, 올해 역대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전복가격 때문에 20여가들이 파산을 신청했거나 신청하기 위해 대기중”라고 귀띔했다.

완도군과 어민들은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과잉 생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꼽고 있다. 전복양식이 호황사업으로 인식돼 전복양식 어가가 급증



과잉 공급에 가격 45%까지 급락  
일본 오염수 배출 여파 소비 위축  
대출 이자도 감당 못해 '망연자실'

파산 신청 대기자만 200~500명  
시설 헐값 판매 야반도주 소문도  
완도군, 전남도와 대책마련 나서

재산보다 빚이 많고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의 심사를 거쳐 빚을 탕감해 주는 게 파산 제도다. 결국, 파산 법정을 찾는 이들은 벼랑 끝에서 버티다 포기한 시민들이다.

문제는 파산신청 대기자가 200~500여 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김양수 완도전복생산자협회 본부장은 “완도군 노화와 보길에서 현재 800여가가 전복을 키우는데 수협에서 대출 채권 관리가 안 되는 어가가 200곳 이상”이라면서 “지금도 전복 양식 가두리 여장이 속속 경매 물건으로 나오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복 어가들은 소비 위축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들은 보통 수협에서 5~10억원의 대출을 받아 전복을 키운다. 전복양식의 특성상 기본시설과 작업·관리선박 등을 구입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다. 전복 어민 대다수가 수협의 대출을 받아 양식을 하는 이유다.

하면서 생산량이 폭증했다. 지난해 2012년 6700t이던 전남지역 전복생산량이 2016년 1만t을 넘었고 지난해 2만 1900t이 생산됐다. 올해 5월까지 전남지역 전복생산량은 9145t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8%(지난해 8405t) 증가했다.

지난해 완도지역 기후도 우려했던 ‘홍수출하’를 불러왔다. 여름 수온이 많이 오르지 않고 태풍의 영향도 없어 최적 생산환경이 조성돼 전복 과잉생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산물 소비가 위축돼 전복 양식어가들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어민들이 과잉생산과 소비위축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민들의 고충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자체 뿐 아니라 전남도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완도=정은호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광주지법도 정부 제3자변제 ‘제동’

전주지법 이어 일제강제동원 피해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행하고 있는 제3자 대위변제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판사 강애란)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재단)이 대한민국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주지법의 유사 신청사건에 대한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이 사건 신청인은 재단이고 채무자는 일본기업, 채권자는 양금덕(95) 할머니와 이춘식(103) 할아버지다.

재단은 재판부에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을 위반한 점 ▲제3자 변제공탁의 적법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금은 미스비시 중공업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위자료청구권)”이라면서 “가해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에게 손

해를 배상하는 것이 그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면서 “위자료는 배상금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 금전적인 만족 이외에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인격적 모욕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피해자를 심리적·감정적으로 만족시키는 기능도 있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재판부는 “가해기업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제3자 변제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판결금이 결과적으로는 금전채권으로서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명백하다면 제3자 변제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위자료의 제재적, 만족적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채권자의 반대사표시에 의한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3자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염수 투기 반대 16일 전국어민회총연맹고흥지회는 고흥군 도양읍 농동바다정원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전국어민회총연맹고흥지회 제공)

# 광주 도심서 만취해 흥기 들고 활보

과거 정신과 치료 전력...동부경찰, 20대 살인예비혐의 체포

광주 도심에서 만취한 20대가 흥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16일 광주시 동구 수기동에서 20대 A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흥기를 소지하고 이날 새벽 3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집에 있던 흥기를 옷 안에 넣은 뒤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

려졌다. 술을 함께 마시던 후배가 “A씨가 흥기를 들고 나갔다”며 경찰에 신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흥기를 사용한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리모델링 작업중 대리석 깔려 사망

광주시 남구 소재의 헬스장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대리석에 깔려 숨졌다.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1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헬스장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A(59)씨가 위에서 떨어진 50kg 가량 무게의 대리석에 깔렸다.

이 사고로 전신에 골절상을 입은 등 중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주변 구조물 절거 후 남아있던 대리석이 2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 공사장 타설 중 콘크리트 액체 쏟아져 ‘아찔’

광주서 차량 20여대 손상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콘크리트 액체가 쏟아져 주차된 수십대의 차량에 떨어졌다.

16일 광주광역시경찰과 광주광역시소방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액체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사현장에서는 39층과 40층 사이에서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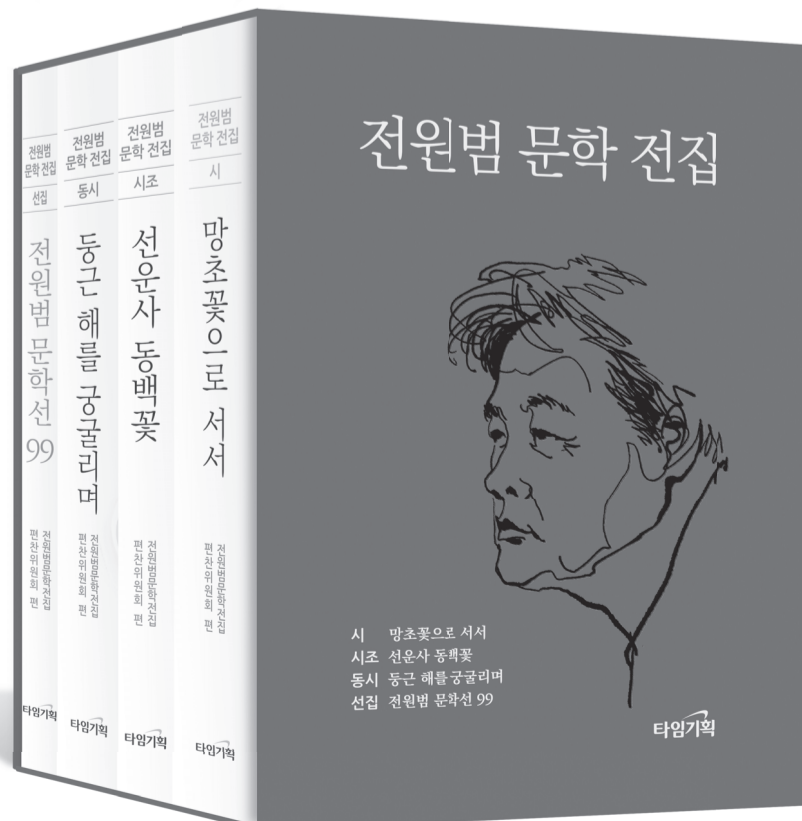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이 벌어진 틈으로 타설액이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20여 대에 콘크리트가 떨어졌다. 타설액과 함께 자갈도 인근 주택으로 떨어져 지붕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는 피해를 본 차량 주인 등에게 변상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

